

이멸징 문화 속에 선교적 교회 만들기

박양식(기학연 연구위원, 숭실대 기독교학 대학원 강사)

I. 이멸징 문화 속의 교회 반응

모더니티 사회가 끝나고 포스트 모던 사회가 도래하였다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제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역사적 실재로 자리잡았다. 이성과 법칙 그리고 진보의 이념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상대주의적 가치과 다원주의적 신념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었다. 이를 특정한 특징으로 규정하여 파악하는 작업은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더 이상 모더니티의 원리만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 그에 대한 교회의 반응도 달랐다. 이것은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절한 반응하여야 시대적 책무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과는 다르다. 복음의 진수를 시대의 옷을 입혀 전하는 것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복음을 위해서 문화적 변신은 무죄다.

모더니티 문화는 바뀌어 포스트모더니티 문화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있었다. 이를 통칭하여 창발적 교회 운동(the Emerging Church Movement)이다. 이멸징이란 말은 새로이 부상한다는 뜻인데, 창의적(creative)이고 발생적(generative)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멸징이란 말을 창발적이란 번역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멸징이란 말은 포스트모던이란 부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모더니티에 대한 반동의 의미보다는 새로 부상되어 나온 도전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발적 교회 운동은 새로 변한 포스트모던 혹은 이멸징 문화 현실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반응한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다. 각자의 현장에서 새로운 교회 사역을 창출하여 하나의 흐름을 이룬 것은 교회론적으로 또한 선교론적으로 깊은 성찰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문화와 복음의 관계 속에 교회론과 선교론을 재정립하며 초대교회의 생생한 역사를 재현시키고 있다. 이를 선교적 교회(the Missional Church)로 개념화하며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변한 문화 속에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다.

II. 선교적 교회의 핵심

선교적 교회는 이멸징 문화에 대한 교회의 신학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 수립된 것이다. 이런 반성과 성찰을 자극한 사람은 레즐리 비긴이다. 그는 30년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한 레즐리 뉴비긴이 조국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조국이 선교지로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방콕에서 1970년대 초 방콕에서 열린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 컨퍼런스에서 한 아시아 지도자로부터 기억에 남는 질문을 받았다. “서구 사회가 개종될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이것은 서구 교회가 직면하여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 문제에 주목하여 고민하던 선교학자와 신학자들이 집중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dspel and Our Culture Network)를 결성하여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라는 말로 공유되고 있는 개념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1998년 대화의 결과물로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을

출간하였다. 이것은 문화와 복음과 교회의 삼중적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선교적 교회의 방향과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선교적 교회란 교회에 관한 성장 프로그램을 지칭하거나 옛 아이디어에 새로운 붙인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에 입각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동참하기 위한 성찰의 표현이자 의지의 표현이다.

선교적 교회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소리는 높지만 적절한 답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이 아니다라는 식의 설명이 많다. 그럼에도 앨런 록스보로 교수는 선교적 교회의 특성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서구 사회 자체가 선교 현장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서구 교회가 그동안 서구 이외의 지역을 선교지로 보고 가서 선교를 하였으나 이제 서구 사회가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비서구가 선교지가 아니라 서구 사회도 선교지이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보냄받은 그곳이 바로 선교 사역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단과 지역 교회는 자신의 문화와 사회로 보냄받은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변화된 모습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선교적 교회란 말 속에는 과격한 형태로 새로이 등장한 도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관한 것이란 것이다. 이 개념은 선교적 대화를 함에 있어 중심적 주제로 이해된다. 이것은 기독교 이야기의 초점이 근본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 이야기들은 세상 안의, 세상을 통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선교에서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이런 관점은 선교적 대화에서 근본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선교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복음의 궤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잡은 절충안의 깊이, 그리고 현 상황에 호소함에 있어 직면하게 될 도전의 정도를 포착하여 표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셋째는 교회는 대조 사회로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일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일련의 신조들과 관행들에 관련하여 일어나는데, 특정 문화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특정 문화 안에서 번역가능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생활 방식에서이다. 일종의 대조사회로서 교회는 신앙 내용들과 실천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다. 그러한 신앙 내용들과 실천들은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특정 문화와 사회로부터는 이끌어낼 수 없는 생활 방식이다. 성경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자원들을 통해 창출해 가는 대조사회로서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보여준다.

선교적 교회가 지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서구 교회가 그 자신의 문화 세계 곧 주변화의 현실 안에서 문지방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상실, 걱정, 혼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관심을 두는 것은 기존의 방법론과 체제를 기꺼이 초기화 설정으로 다시 돌려놓는 작업이다. 이런 선교회 교회 만들기는 개인적 필요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댓가를 치를 것이지만 성경적 생활 방식을 순종의 자세로 실천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결과를 내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웃들과 공동체들의 현실적 맥락이 지닌 특수성과 구체성 속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이다. 아직 선교적 교회를 구성할 만한 훈련을 받거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리더십 개발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의 공동체 사이에서 성경의 권위를 따라 살기로 선택한 초대 교인들의 초심을 회복하여 실천하는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것은 대조 사회를

형성하는 일로서 선교적 교회 만들기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록스버로의 개념 설명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개념 정의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만들기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선교적이란 말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에 관한 논의는 이론보다는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선교적 교회 만들기는 지금 단순히 어떤 교회에 관한 정의내리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천에 초점을 맞춘 운동력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새로운 선교 상황에 대한 교회의 적절한 사역 방향성을 설정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다면 선교적 교회 만들기는 기성 교회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

한국적 상황의 적용

얼핏 보면 선교적 교회 만들기에 관한 논의가 서구 교회에나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너무도 안이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이 세계 속에 고립된 섬이 아니라면 느긋하게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근대화와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의 문화 단계를 뒤쫓고 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은 세계 역사의 전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T 산업의 진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새로이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은 세계 역사 속에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의 흐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교회가 기독교권이라고 불릴 만한 토양을 잃었다고 하는 서구 교회의 현실에서 한국 교회가 예외로 빠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의 흐름에 따라 기독교 후기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성장세가 둔화되어 오히려 퇴보를 논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멸징 문화 속에서 선교적 교회 만들기는 한국 교회의 중요한 담론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서구 교회의 선교적 교회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한국 문화적 풍토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과제들을 찾아 나서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멸징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 교회는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존재론적으로 묻고 거기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 또는 교회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선교 곧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에 실존적 반응을 보이는 참여가 일어나야 한다. 난잡한 삶을 사는 실제 세속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그들의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 고린도 같은 난잡하고 이교적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화와 교회 현실에서 선교적 교회 만들기는 시대 변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자 세계 교회를 향한 또 다른 도전이다. 이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실험의 돌입이 미흡한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 만들기가 시기상조의 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선교적 교회 만들기가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 흐름에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내는 시대적 소명으로 이해되고 실천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한다.